

‘신문염송’ 등 세계에 내놓는다

조계종 영역·출판사업 추진

조계종이 한국불교의 정수가 담긴 전통사상서들을 영역해 세계에 알린다.

조계종원은 중국, 일본불교와 차별화된 한국불교사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부터 3년 동안 매년 10억원씩 총 30억원을 들여 ‘한국전통사상서 영역·출판사업’을 추진한다고 1월 10일 발표했다. 번역서는 의상대사의 <화엄일승법계도> 진각국사의 <선문염송> 보조국사의 <간화결의론> 태고국사의 <태고화상어록> 서산대사의 <선가귀감> <선문활요> 경허선사의 <경허집> 성철선사의 <백일법문> 등 고대와 근·현대를 아우른 대표적인 사상서 23권이다.

조계종은 올해 6권을 번역하고 이 가운데 한권을 영문판으로 출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집행위원장 승원 스님(기획실장), 사무국장 원철 스님, 상임연구원 2~3명,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를 2월께 설치한다.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7권을 책으로 묶어 각 국 대사관, 한국문화원 등 재외공관과 1000여 세계 주요 대학에 배포할 계획이다.

조계종은 이 사업을 통해 한국불교가 세계적으로 보다 알려지고 한국학 발전, 전통문화 진흥산업 내실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3%의 힘 세상을 바꾼다

참여불교재가연대 ‘1만가족 공동체운동’ 본격 전개

수입·시간·능력나누기...매일 100원 저축·남 위한 1분 기도 등

보시(布施). 보살의 실천 덕목인 육바라밀(六波羅密) 가운데 제1 덕목이다. 자비의 마음으로 다른 이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을 말한다. 대승불교에서 보살은 물질적 보시인 재시(財施)와 부처님 가르침을 나누는 법시(法施), 모든 공포심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무위시(無畏施)를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요즘 보시는 불공이나 불사를 할 때 일정한 금전이나 물품을 내는 것으로 의미가 한정되기도 한다.

참여불교재가연대(이하 재가연대)가 김동건 상임대표의 신년사를 통해 올해부터 ‘1만 가족공동체운동’을 본격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1만 가족공동체운동은 일상적인 삶에서 회향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0년까지 1만 가족을 회향운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재가연대가 새로운 유형의 ‘불교 대중문화운동’을 펼치는 배경에는, 올해 불교계가 자기혁신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일구는 선구자가 되느냐, 아니면 사회적 열등생으로 전락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고민이 짙게 배어있다. 지난 해 말 조계

종의 한 교구본사주지가 구속수감됐듯 일반 사회는 불교계에 도덕적 책임의식 뿐만 아니라, 종단과 불교, 한국사회 미래를 아우르는 통합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해 국민들에게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공은 승가를 비롯해 조계종 및 불교계 주요 종단으로 넘어갔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재가자들의 몸부림에 화답을 할 때가 된 것이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에 안이하게 기대어 관성적 사업들을 지속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재 관람료...신중한 검토

1월 1일부터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되면서 단독정수를 시작한 시설의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조계종 총무원장은 1월 12일 긴급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매표소 위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립공원지역에 무상으로 편입된 1억1000만평의 사할토지에 대해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교구본사주지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검토하는 스님들의 표정이 심각하다. **관련기사 2면** 사진=고영배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 후원 계좌 :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 언제나 앞서갑니다

새로운 읽을거리 새로운 지식정보 새로운 감동

생활속의 신형 도반 현대불교신문이 지면 구성적 기쁨과 감동을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 갑니다. 2007년을 ‘새로운 도약의 해’로 정한 ‘현대불교’가 새로운 읽을거리로 더욱 알차게 지면을 재해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연중캠페인-새싹불자를 키웁시다**
현대불교가 어린이 청소년 포교 캠페인으로 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현실적인 ‘속제불기’에 나섭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지면을 매주 2페이지 운영하며 다양한 정보와 읽을거리를 제공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는 즐거운 공간이 ‘현대불교’에 있습니다.
〈캠페인 종합 안내 14면〉

■ **인물록 세상鏡**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경전’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삶보다 소중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남다른 이아기로 삶의 경전을 쓰는 인물들 통해 세상을 비춰봅니다.

■ **선지식을 찾아요**
‘현대불교’ 장간 이후 독자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은 코너 ‘법석’에 보다 다양한 선지식들을 모시겠습니다. 지면을 통해 전해지는 선지식들의 생생한 육성 가르침은 커다란 울림으로 남아 참사람의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 **詩를 떠나는 암자기행**
짧지만 긴 여운을 남기는 시, 작지만 지워지지 않는 찬상으로 남는 그림, 시와 그림을 한 눈에 감상하며 암자의 정취

를 맛볼 수 있습니다. 미당(未堂)의 추천으로 등단한 장인성 시인의 암자를 주제로 한 시편과 대한민국 문인화대전 초대작가 이상재 화백의 그림이 매주 고즈넉한 암자로 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정산 스님의 ‘사할 음식의 모든 것’**
최근 건강식으로 크게 각광받는 ‘사할음식’은 재료 하나 하나와 만들고 먹는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수행입니다. 그러나 점차 전통 사할음식이 사라지고 있어 그 보존과 계승발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산 스님(본명 김연식)이 사할음식 본연의 정신과 유래, 특징, 만드는 법 등을 독자에게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정산 스님은 40여년부터 법어사를 비롯 많은 전통사찰에서 비빔밥 전수받은 사할음식 연구와 보급의 ‘원조’입니다.

■ **조선왕릉에서 불교를 읽다**
‘승유역불’로 규정되는 조선의 통치이념. 그 단면에는 불교에 대한 억압과 숭상이 공존했습니다. 왕릉은 굳어버린 역사가 아니라 살아 있는 역사의 현장이고 언제나 귀를 열면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소설가 이우상 씨가 온 마음을 열고 조선 왕릉에서 불교 이야기를 읽고 사찰자가 최진연 씨가 왕릉의 아름다움을 펜츠에 담아 전합니다.

■ **우리나라 불교음악 이야기**
한국불교음악사를 인물, 합창단, 통사 등으로 나눠 각 분야별 전문가가 심도 있는 불교음악의 역사를 전해줍니다. 불교연론 최초로 한국불교음악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숨은 이야기까지 전해줄 것입니다.

I Love Buddha / 생겼으면 사라짐이 있거늘

용정운(www.buddhallust.org)

모든게 생겼으면 사라짐이 있거늘...

금주 28면 발행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진품차사 초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불교의 뿌리 초기불전, 초기불전연구원이 옹고 있습니다

모든 나무에 뿌리가 있듯이 불교 2600년의 전개에도 그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를 거부하고 나무가 살아남을 수 없듯이 뿌리를 모르는 불교는 역사를 아는 이 시대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뿌리리 삼장은 불교 만대의 뿌리요 그래서 모든 불교의 표준이 될 수밖에 없는 부처님의 원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초기불전연구원은 이러한 뿌리리 삼장의 한글번역을 발원하여 2002년에 설립되었으며, 지금 열과 성을 다해 뿌리리 삼장의 완역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원음이 우리의 말과 글로 이 땅의 자손만대에 전승되어, 한국불교의 튼튼한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초기불전연구원 출판도서 안내

디가 니까야(長部, 길게 설하신 경) (1·2·3)
각목 스님 옮김/신국판(양장)
제1권: 616쪽/제2권: 600쪽/제3권: 688쪽
정가: 각권 30,000원
(초판 2006년, 2쇄 예정) * 제3회 보현학술상 수상

앙굿타라 니까야(增支部, 숫자별로 모은 경) (1·2)
대림 스님 옮김/신국판(양장)
정가: 각권 30,000원 (초판 2006년)
제1권: 664쪽/제2권: 656쪽
* 3·4·5·6권은 2007년에 출간예정임

창정도론(위수디막가) (1·2·3)
대림 스님 옮김/신국판(양장)
제1권: 536쪽/제2권: 584쪽/제3권: 536쪽
정가: 각권 30,000원 (초판 2004년, 2쇄 2005년)
* 본원의 자부심. 제13회 행인문화상 영광상 수상

아비담마 길라잡이(아비담밧타 상가하 역해) (상·하)
대림 스님/각목 스님 옮김/신국판
상권: 490쪽/하권: 408쪽
정가: 각권 15,000원 (초판 2002년, 5쇄 2006년)
* 어려운 논서임에도 5쇄까지 출간한 본원의 베스트셀러 불서

네 가지 마음챙기는 공부(대법처경 및 주석서)
각목 스님 옮김/변형신국판 280쪽
정가: 10,000원
(초판 2003년, 개정판 2쇄 2006년)

들숨날숨에 마음챙기는 공부(출입식념경 및 주석서)
대림 스님 옮김/문고판 152쪽
정가: 6,000원
(초판 2003년, 개정판 1쇄 2005년)

• 책주선: 054-743-8579, 052-271-8579 (초기불전연구원) 초기불전연구원 홈페이지: http://cafe.daum.net/chobul (초기불교와 아비담마에 대한 자료 풍부하다)